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가첩고(家牒稿)가 완성되어 책 말미에 제하다 家牒稿成 題于卷尾

신라 왕의 성골(聖骨)이 바로 우리 선조시니
羅王聖骨是吾先
시림(始林)에서 닭 울던 일 그 지취 아득하다.
西始鳴鷄事渺然
식음 하사 받은 것이 바야흐로 21대
錫邑今方三七代
나라 연 지 아득히 1천년이 지났다네.
開邦舊已一千年
한림의 문장은 풍성(風聲)이 아득하고
翰林詞藻風聲遠
첩의(僉議)의 존영은 복과 경사 이어졌네.
僉議尊榮福慶綿
소자는 실추할까 두렵고 근심하여
小子怛然憂失墜
가첩(家牒)으로 기록하여 오래 전하려 하네.
錄爲家牒要流傳

강촌에서 병 앓은 뒤 江村病後

병든 사람 대문에 참새 그물 칠 만한데
病人門巷可張羅
머리 위로 가는 세월 북을 던져 오가는 듯.
頭上光陰任擲梭
강 제비는 바람 받아 날아가기 간편하고
江燕受風飛去便
언덕 꽃은 비 온 뒤에 많이도 떨어졌네.
岸花經雨落來多
막걸리는 참으로 근심 막을 수 없건만
濁醪飲爾愁愁得
가절에도 이내 몸이 못 마심을 어이하리.
佳節如吾不欲何
잠시나마 부창 향해 한숨 잠자노라니
暫向北窓成一睡
꿈속에도 잘 갈매기 물결만 끝없어라.
夢中無限白鷗波

*태사(太師)께서는 내게 21대조가 되므로 삼십이라 했다.(太史於韓爲二十一代祖云 故三十七)

한림 : 권근(權近, 1352-1409)이 예문관 학사를 지냈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석주의 6대조가 된다.

첩의 : 권보(權漚, 1262-1346)를 가리킴. 안향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都僉議使司와 부원군에 이르렀다. 시호는 文正

竹軒 權俊植翁 결혼 60주년 回婚禮

죽헌

권준식



지난 4월29일(음 3월9일) 오전11시,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민씨가옥)에서 하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竹軒 權俊植翁의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여 회혼례를 거행 하였다. 이날 행사는 남산골 한옥마을 집례자 김기진씨의 전안 흥기에 따라 전안례를 올렸다. 옹은 추밀공과 34世孫으로 파조를 비롯해 각 향사와 시조 태사공 도유사, 목사공종희장을 지냈으며, 정현공중 회장 성균관유도회 노원지 회장으로 크게 활동하면서 오문문사 진작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날 하객으로서는 파중회, 종친회, 선후배 고향 친인척 등 다수가 참석했으며, 東峰 權洪燮씨(성균관유교학술원 초빙

교수)外 漢詩 同好인이 쓴 한시 10여수로 옹의 회혼례를 축하해 드렸다.

부인 尹容여씨는 부군과 평생을 해로 하면서 여필중부의 길을 걸으며, 부부금슬이 타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슬하에 3남1녀를 두었으며 모두가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봉사하고 있다.

이날 필동2가 대립장에서 열린 피로연에서 덕담이 오갔으며 옹은 오복을 두루 갖춘 천복(天福)을 타신 분이라고 하였다.

연회는 색동저고리 음악에 맞추어 노래와 춤으로 옹도 도포와 갓을 쓰고 학무(鶴舞)를 추며 화기가 넘치는 즐거운 분위기를였다. (편)



우왕 권이혁 전장관 에세이

구순을 맞이하는 심경

어찌하다 보니 구순(9旬)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에게 올해 임진년(壬辰年·2012년)이 참으로 뜻 깊은 해이다. 구순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9순이 나오는 한참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찾아오니 어리둥절한 느낌이 든다. 찰지에 돌연 찾아온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감개가 무량한 심경이다. 세월이 흐르는 물(流水)과 같다는 말은 옛부터 전해져 내려 왔으며 이 말은 누구나가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불평을 털어 놓는 사실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되어 있다. 세월이 흐르는 속도는 완만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낭만적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날아가는 총탄 정도는 아니더라도, 날아가는 화살 정도로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

구순을 맞이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우선 이제까지 지내온 인생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첫째로는 내가 지내온 인생에 충분한 윤기(潤氣)가 갖질 못했었다는 점을 든다. 윤기가 부족한 인생은 딱딱하게 된다. 부드러운 삶이 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비교적 윤기가 풍부한

삶을 지내고 있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

서울의대 학창시절(1970-76)의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서울대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관악캠퍼스 부지도 박대통령이 지정해 주셨다. 헬리콥터를 타고 몇 번이나 답사한 끝에 당시 관악컨트리클럽을 서울대 캠퍼스로 확정한 것이다. 현재 관악캠퍼스의 교수회관은 당시 클럽 하우스로 사용했던 건물이며, 나는 골퍼로서 너댓번 거기서 식사를 했던 일이 떠오른다.

졸업식 전날에는 각 대학 수석졸업생과 학장들이 정와대로 초청되어 오찬을 대접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통령 식탁 위에는 항상 학장과 학생의 성명을 적은 서류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다. 처음으로 초청되었던 오찬장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되는데 박대통령이 나를 쳐다보더니 '권 학장은 어렵지 않고, 대단히 부드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름이 어려우냐?'하고 웃는 것이다. '弊'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의 표정은 부드러웠던 모양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점점 딱딱해져 간다는 것을 내 자신이 자각하게 되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표정도 윤택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나는 1년 반 쯤 전에 다음해의 화두를 만들어두는 습관

이 있다. 그리고 이 화두가 에세이집의 책명이 된다. 2006년에 발행되었던 첫 번째 에세이집의 제호가 '여유작자'(餘裕作家)이었다.

다음으로는 유머가 부족한 인생을 걸어왔다는 생각이다. 유머는 인간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고상한 능력이고, 특성이며, 사람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원숭이(類人猿) 사회에도 유머는 없다. 인생에 유머러스한 부분이 많다면 이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유머러스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다. 유머는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보통의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예리한 지적을 할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격조 높은 유머를 행사하는 사람의 인격이 대단히 환영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식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만큼 유머나 유머러스한 인생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나는 구순을 맞이하면서 이상의 두 가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자신이 없다. 이제까지의 인생에서 그러한 기회가 얼마쯤이라도 있었는데도 실패했는데, 구순이 되어 가지고 평소애 습성화된 타성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다.

(다음호에)

丁茶山の 牧民心書 이야기(5)

<지난호에 이어>

애민(愛民)

1. '養老之禮必有乞言 謝病'疾以當斯禮. 노인을 공양하는 예(禮)에 반드시 절언(乞言: 助言을 구함)의 절차가 있으니, 그 고을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노장(老長)들께 고집적인 병폐나 악습을 여쭙어 보고 좋은 말씀을 청하여 들음으로써, 수령은 이 예(乞言之 禮)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장흥거(張興敬)가 운안(雲安)의 현령으로서 있을 때에 매달 길일(吉日)을 택하여 술과 음식을 갖추어 놓고는 그 고을의 연장자들을 현정에 모시고 친히 술을 권하며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노인과 웃어른 섬기는 뜻을 알게 하였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괴로운 사정을 묻기도 하고 자제들을 훈계하는 도리를 묻기도 했다. 생각건대 황제가 실행한 것은 옛날의 양로절언(養老乞言之) 예(禮)를 실천한 것이다.

인조(仁祖) 때의 정승 장현광(張顯光)이 보은(報恩)의 현감이 되어, 고을의 부로들과 초하루 보름으로 함께 모이기로 약속하고, 그들에게서 백성들의 괴로움과 관습의 폐단을 듣고 보완하여 바로잡았으며,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게 하였으며, 정렴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애썼으며, 덕행을 존중하였다. 생각건대, 이 또한 앞서의 장황거가 실천한 방법과 같다.

2. '以時行優老之惠 斯民知敬老矣. 때때로 노인을 우대하는 혜택을 베풀면, 이로써 백성들은 노인을 공경할 줄 알 것이다.'

<상산록(象山錄)>에, '80세 이상 장수(長壽)한 남자 21명과 여자 15명을 뽑아, 전모(傳耆: 모직으로 만든 모자) 36개를 사되, 남자들은 자주색으로 여자들은 검정색으로 하여 입동(立冬)날에 나누어 드리면, 그 비용은 불과 열 냥인데, 백성들은 이를 몹시 기뻐한다.'고 하였다.

또 계피와 생강으로 엿을 만들되, 정식 방법대로 36근을 만들어 기름종이로 포장해 두었다가 동짓날에 노인들께 나누어 드리면, 그 비용이 불과 열 냥도 못되지만, 백성들은 진심으로 기뻐한다.

이 엿은 담(痰) 걸린 것을 누그러뜨려 주며, 기침을 멎게 하며, 구충제의 효과가 있으며, 흥분을 가라앉히므로 노인들에게는 거울에 매우 좋다.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으로 키움

3. '歲值荒穰棄兒如遺收之養之作父母. 흉년이 드는 해에는 아이 버리기를 물려 버리듯 하니, [수령은] 이를 거두어 길러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후한(後漢) 때 방삼(龐參)이 한양(漢陽)의 수령이 되었는데, 그 고을 사람 중 임당(任堂)이란 사람이 있어, 은거(隱居)하면서 후학(後學)을 가르쳤다. 방삼이 먼저 문안차 임당을 찾아갔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추 한 뿌리와 불 한 사발을 병풍 앞에 갖다 놓고는 어린애를 안고 문 밖에 엎드리는 것이었다. 방삼은 임당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음과 같이 짐작해 냈다. '물은 내가 청명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부추는 내가 강한 무리들을 치라는 것이요, 어린애를 안고 문 밖에 엎드린 것은 문을 열어 놓고 고아들을 구출하려는 뜻이로군.' 그리하여 방삼이 그대로 실행하니, 한양은 잘 다스러졌던 것이다.

4. '我朝立法許其收養 爲子爲奴 條例詳載. 우리나라 조정에서도,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길러 그 아이를 자식이나 종으로 삼는 것을 허용함을 법으로 정하였는바, 그 법조문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현종(顯宗) 12년 4월에, '수양유기아법(收養遺棄兒法)'을 마련하였는데, 무릇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얻은 자는 한 성부(漢城府)에 알려 공문을 받도록 하되, 자식으로 삼든 종으로 삼든 얻은 자의 의의대로 하게 하였다. 전에 내가 경기 지방에 암행어사로 파견된 일이 있는데, 선왕(先王: 正祖大王)을 가리킴)께서 나를 영춘현(迎春縣)으로 부르시어,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도록 성의를 다하라고 거듭 당부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측은하고 간절하셨다. 내가 각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년하여 살피보존 한 사람도 임금의 뜻을 받들어 파는 자가 없었으니, 목민을 책임진 수령들이 제 직분을 다하려 하지

않음이 이미 오래였다.

<속대전(續大典)>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흉년에 유기된 어린이는 다른 사람이 살려 수양하여 제 자식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게 하되, 어린이의 연령의 한도와 수양 날짜의 한계는 임시 사목을 따르도록 하라. 유기아의 수양은 3세 미만은 그 한도로 하되, 흉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8,9세 혹은 15세를 한도로 한다.'

구재(救災):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함

5. '凡有災厄 其救災拯溺 宜如自焚自溺 不可緩也. 무릇 재해와 역운이 있을 때에는, 불타는 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 내기를 나 자신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또 나 자신이 물에 빠진 것처럼 서둘러 구해야 하며, 느장부러서는 안 된다.

소식(蘇轍)이 밀주(密州)로부터 서주(徐州)로 옮겼는데, 그 때에 하수(河水)가 터져 물이 성 밑으로 밀려드니, 백성들이 다투어 나와 물을 피하려 했다. 식(軾)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는 한성이 무너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는 그들을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몸소 말채찍을 들고 무위영(武衛營)으로 들어가 종장을 불러 말하되, '너희가 비록 금병(禁兵: 성을 지켜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군사)이나 나를 도와 진력토록 하라.' 하니, 종장이 응답하기를 '태수께서 강물을 피하지 않으시는 데, 저희가 감히 목숨을 아끼겠나이까.' 하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옷을 견어붙이고 맨발로 삼태기와 삽을 들고 나아가 동남(東南)으로 긴 독을 쏘되, 희마대(戲馬臺)에서 시작하여 성에까지 닿으니 백성들이 안심했다.

선조(宣祖) 때에 황진(黃進)이 동북(同福: 오늘날의 전남 화순군 동북면 일대)의 현감이 되었는데, 그 고을에 마침 큰물이 들었다. 백성들이 떠나려가고 빠져 죽게 되자 황공(黃公)은 스스로 몸을 던져 떠나려하는 사람들을 건져냈다. 그 가운데에 한 노파를 구출해 냈는데, 그 노파는 죽음을 면하자, '내 표주박도 좀 건져 주시!' 하고 외쳤다. <끝>

이 달 의 <시>

정보리 밭



청하권대욱

기왓골 가는 길, 여태 남은 가랑잎
고개 넘어가는 구슬픈 춤사위
먼 사래밭에 일렁이는 푸른 파도
지쳐가는 오월의 날에는 긴 하품 내지르며
두 눈에 담아두었던 사과밭 돌담길 따라
삶의 노을에 지친 몽롱한 눈길은
아카시 꽃피는 날까지 걸어간다.
정보리 밭 긴 이랑에 눕는다.

헐거웠던 날들도 요란스런 춘 사월의 날
초여름이 지쳐갈 즈음이면
두견새 피땀한 울음이
나도 파란 하늘바람이 되고 싶다.

보리피리 소리에 장단 맞춘 날